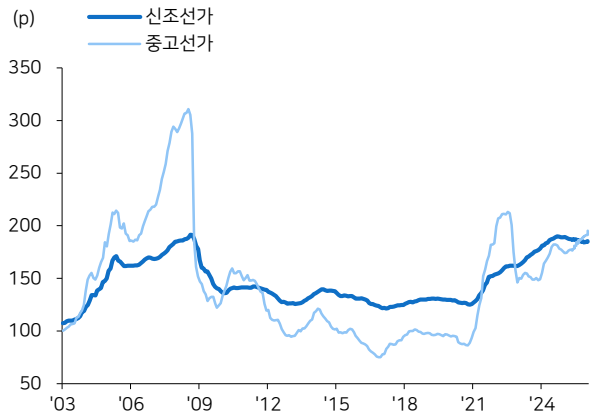
2026. 1. 30 (금)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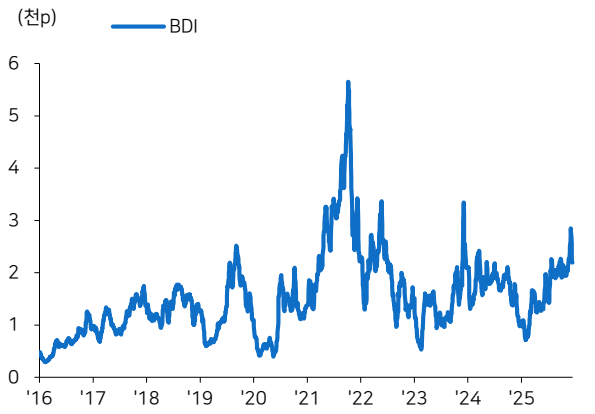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4.8p (+0.1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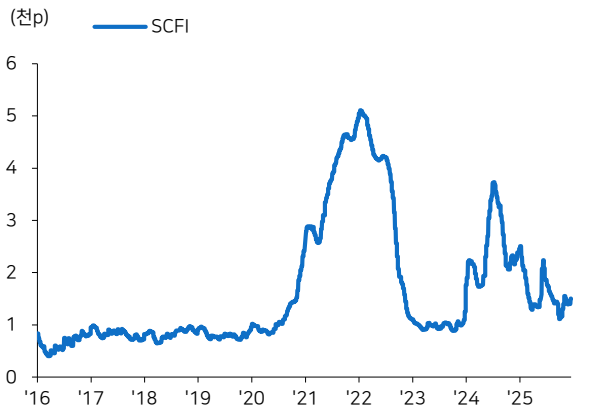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481.0달러 (-1.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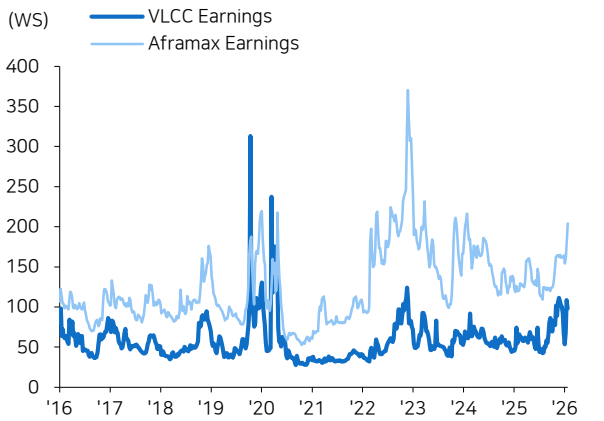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016.0p (+17.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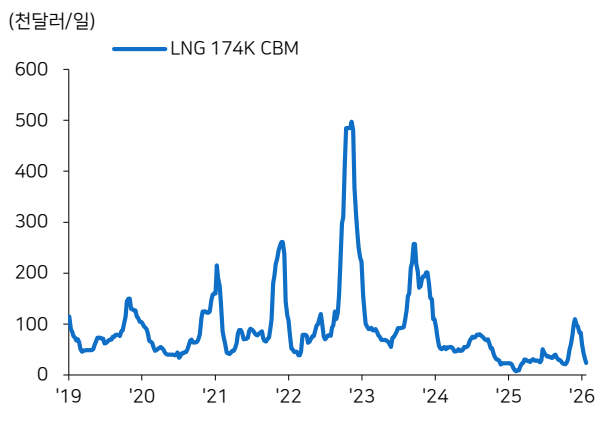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457.9p (-116.3p WoW)



VLCC Spot Rate 98.4WS (-10.1p WoW)



LNG Spot 운임 23.5천달러 (-9.0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HD 현대 정기선 회장, 인도 모디 총리와 조선 협력방안 논의 — **연합뉴스**

HD현대 정기선 회장이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만나 조선업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며 인도 에너지 위크 2026의 일환인 글로벌 에너지 리더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고 보도됨. 정기선 회장은 인도가 해외 생산거점 다변화 전략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알려짐. HD현대는 코친조선소와의 설계 · 구매 · 생산성 협력과 함정 분야 확장, 타밀나두 주와의 합작 조선소 협약을 통해 인도 정부의 Maritime Amrit Kaal Vision 2047 참여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전해짐. (https://buly.kr/6iiYhf9)

TKMS, Seaspan Shipyards sign teaming for 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 — **Naval News**

TKMS와 캐나다 최대의 선박 건조 · 설계 · 수리 기업 Seaspan이 캐나다 정부의 해군 함정 유지 · 정비 및 전 생애주기 지원 자주 역량 확보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Teaming Agreement를 체결했다고 알려짐. 협력 내용은 캐나다 서해안과 동해안에서 미래 잠수함의 유지 · 정비 역량을 국내에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며 캐나다 해군, 해상장비 프로그램, 함대 정비 시설, 캐나다 산업 전반을 통합하는 구조로 알려짐. Seaspan의 잠수함 운용 중 정비 경험과 공급망 역량, TKMS의 잠수함 엔지니어링 및 글로벌 유지 · 정비 경험을 결합해 CPSP 지원과 캐나다 해군 유지 · 정비 산업 성장, 향후 수출 지원 기회까지 모색할 방침이라고 보도됨. (https://buly.kr/15QJTGO)

Mozambique LNG restart signal set to green-light 17 newbuildings — **TradeWinds**

TotalEnergies가 200억달러 규모 Mozambique LNG 프로젝트를 재가동하며 2029년 인도를 목표로 연간 1,280만톤 프로젝트 공사가 대폭 재개될 예정이라고 전해짐. 이에 따라 2020년에 계획됐던 LNG 운반선 신조 17척 발주도 다시 논의되며, 당시 HD현대삼호 9척과 삼성중공업 8척으로 예약됐던 건조 슬롯의 유효기간이 1월 말까지 연장됐다고 알려짐. Patrick Pouyanne와 Daniel Chapo가 아푼기에서 재개 행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일부 선주의 이탈로 남은 슬롯은 잔여 선주들에게 재배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인도 시점은 2029~2030년으로 전망된다고 보도됨. (https://buly.kr/AwgkFS9)

한화오션 노사, 노동존중 및 상생협력 합의…고소·고발 취하 — **연합뉴스**

한화오션 노사가 상생협력과 노동존중을 바탕으로 발전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됨. 경영지원실장 정인섭 사장과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한화오션지회 강주용 수석부지회장은 거제사업장에서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전해짐. 합의서에는 선진적 노사관계 정립과 공정한 운영을 위한 협력적 파트너십 강화가 포함됐으며 한화오션지회가 사측과 고용노동부 등에 제기했던 고소 ·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알려짐. (https://buly.kr/GZyzdI3)

한화오션, 美 군수지원함 2 척 MRO 마무리…추가 수익 창출도 — **전자신문**

한화오션이 미 군수지원함 찰스 드류함과 윌리 쉬라호의 유지 · 보수 · 정비 MRO 사업을 마무리하고 출항 준비에 돌입했으며, 계약 범위를 넘어선 추가 정비 사항을 발견해 수익성이 확대됐다고 보도됨. 찰스 드류함과 윌리 쉬라호의 MRO 과정에서 미 해군이 인지하지 못한 정비 항목이 확인돼 매출 증가를 반영한 수정 계약이 체결됐다고 알려짐. 한화오션은 납기 준수와 자체 솔루션, 협력사 공조를 바탕으로 미 해군의 신뢰를 확보했으며, 향후 미국 외 국가 함정까지 MRO 수주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전해짐. (https://buly.kr/E7ANttl)

Tanker rate boom to kick-start fresh newbuilding cycle, experts say — **TradeWinds**

노르웨이 선급 DNV에 따르면 높은 탱커 운임과 톤마일 증가, 선대 노후화 영향으로 향후 수년간 탱커 신조 발주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짐. 오더북이 전체 선대의 약 17%에 그쳐 VLCC와 suezmax 중심으로 노후 선복을 대체하기에 부족하며,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조선소 슬롯 여유가 2026년 이후 발주를 뒷받침할 전망으로 보도됨. 선주들은 대체연료 추진보다는 연료 효율 개선 기술을 우선 적용하는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노후 선박 비중 확대가 장기적으로 폐선 압력을 키울 수 있다고 알려짐. (https://buly.kr/Csl5BZC)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